

## 14 요한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말씀: 요14:1-3

금요일, 존 파이퍼,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운다.

지난 금요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가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자기 목숨도 희생하였다.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강해 순서를 바꾸었다. 원래 6장, 그러나 14장으로

이유: 지난 5개월 이상 코로나 19로 영육이 피폐함, 설상가상으로 좌파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틀을 깨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를 파멸 상태로 이끔.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쁨이 없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자살을 했다. 법에 따라 번사체는 반드시 시체 부검을 하고 원인 등을 가려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노무현, 노회찬 등 좌익 인사들은 국면 전환을 위해 자살이라는 무리수를 택한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살이 미화될 수 있고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자살로 끝내면 된다는 나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고 위선과 속임수의 선전 선동으로 무지한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이끄는 데 있다.

이것은 사회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계의 목사들에게도 해당된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 진화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이러다 보니 국가 정책 입안자들도 교회를 대놓고 무시한다. 7월 8일 정부 공지: 교회의 공예배 제외하고는 모든 소모임을 갖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식사하지 말며 QR 코드를 사용해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제시하라.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어느 분, 정세균 총리실 전화, 공무원들은 소모임 안 갖느냐? 구내식당에서 식사 안 하느냐? QR 코드 사용해서 출퇴근 명부 작성하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좌익들은 기독교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이런 괴이한 일들이 지난 3년 이상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땅에서 계속 생기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기쁨이 없다.

나 개인의 경우, 지난 5년간 성경 교정, 끝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생긴다. 손을 놓지 못한다.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하려다 보니 큰 스트레스, 건강 문제, 가정 돌보는 문제, 교회를 돌보는 문제 등이 생긴다. 요즘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14장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 배경 설명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함,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마16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16:18). 그리고는 21절,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예비하기 시작함, 제자들의 눈에도 이것이 확연하게 보임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행사,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심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 요13:36

베드로의 대답 13:37

아마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이다.

삶의 소망, 목표가 사라졌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다.

지금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제자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견딜 만하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 요13:38

베드로 등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근심만 남았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 이 소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소식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1)**

이 고통의 때에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신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파이프의 정의: 믿음의 대상을 기뻐하며 끌어안는 것

고통과 핍박과 환난의 때에 해야 할 일: 믿음을 점검하는 것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는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음식을 먹는다. 믿음의 문제, 엘리베이터, 자동차 혹은 전철, 일자리, 책상 사물에 대한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믿음의 대상이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있다. 자기의 주변 환경, 지위, 학식, 재산 등을 믿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것

서울 시장, 부산 시장, 충남 지사, 미투 사건 보지 않느냐, 이런 것, 지위 명예 믿으면 안 된다.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 어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1. 창조자 하나님, 우주와 땅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 파위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
2.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느부갓네살, 네로,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시진핑, 이승만, 박정희, 조지 워싱턴, 윈스턴 처칠, 레이건, 트럼프 등 모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악한 통치자들이 수도룩하다. 심지어 나라를 잃고 다른 땅으로 포로생활 가기도 한다.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신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흥왕,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본분을 잃고 변영신학 같은 바알 숭배에 빠지니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 파괴, 법치 파괴, 교회 핍박이 생긴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절규: 힘듭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자꾸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 잠시 후면 다 없어진다. 이런 환난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 환난의 때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이 땅은 잠시 후에 없어짐을 깨닫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라.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되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믿음이다.

### 나를 믿어라

내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크게 실망하고 기쁨을 다 잃고 근심하고 있는데(13:36) 실은 이것이 너희 모두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신다. 21세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들어서 자신의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유대인들의 결혼에서 첫 단계는 보통 정혼이라 불리며 정혼은 결혼 계약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계약은 신랑 될 사람이 주도해서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가 될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신부의 아버지와 협상을 벌여 얼마의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돈을 내고 신부를 사야만 했습니다. 신랑이 동의하고 지참금을 지불하면 결혼 계약이 확립되고 이제 처녀와 총각은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처녀는 자기의 남편만을 위해 구분된 존재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신랑과 신부는 잔에 담긴 포도즙을 함께 마십니다.

이와 같이 결혼 계약이 확립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를 지냅니다. 이 기간에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신랑은 신부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 위해 아버지 집에 붙여서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할 곳’으로 번역된 맨션이 바로 이런 처소입니다.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를 보낸 뒤 신랑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 신부를 데려와야 합니다. 대개 신부를 데려오는 일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와 또 다른 동행자들은 신랑의 집을 떠나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들은 가면서 “보라, 신랑이 온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거리에서 거리로 신부에게 곧 전달됩니다.

신부는 자기 남편이 온다는 것을 늘 기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언제 정확히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신부는 곧바로 자기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같이 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그의 동행자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다 같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에는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이 이미 모여서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결혼식 준비 위원들은 혼인 방이라 불리는 방으로 이들을 데려갑니다. 이 방에 들어가기까지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단 둘이 그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면서 약 1년 전에 결혼 계약으로 확립한 결혼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결혼이 완성된 후에 신랑은 혼인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혼식 준비 위원들에게 자기들의 결혼이 완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한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하객들에게 알리고 이 소식을 접한 하객들은 7일 동안 연회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연회가 열릴 때에 신부는 혼인 방에 머무르며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일이 다 끝나면 드디어 신랑이 혼인 방에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 그녀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겨 모든 사람이 신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 예수님의 말씀 이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설명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풍습을 잘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시려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베소서 5장에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부라 부릅니다(엡5:22-33).

유대인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까지 여행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약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있는 이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초림이다.

유대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 계약을 확립함으로써 신부를 얻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계약 즉 언약을 확립함으로써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얻고자 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던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바꾸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마26:27-28을 보면 그분께서는 포도즙이 담긴 잔을 집고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곧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의 신부인 교회와

새로운 결혼 언약을 세우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상속 언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분은 신약시대를 여셨습니다.

유대인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지불하신 결혼 지참금은 자신의 생명이 담긴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殿)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혼 언약이 확립되면 유대인 신부가 오직 자기의 신랑만을 위해 구별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었듯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새 언약을 통해 구별되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엡5:25-27; 고전1:2; 6:11; 히10:10; 13:12).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잔을 취해 신부와 함께 포도즙을 마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립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주의 만찬의 잔을 취해 포도즙을 마십니다.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을 확립한 뒤 신부의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확립하시고 부활하신 뒤 신부가 사는 땅을 뒤로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되돌아가셨습니다(요6:62; 20:17). [초림과 재림 강조]

유대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 결혼 계약이 확립된 이후에 서로 일정 기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신랑과 떨어져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유대인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기 처소를 마련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와 떨어져 있는 동안 하늘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요14:2).

이렇게 떨어져 사는 기간이 다 지난 뒤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자기 집을 떠나 다시 신부에게 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와 따로 거하는 기간이 다 차게 되면 교회에게로 다시 와서 자기가 마련한 하늘의 처소로 교회를 데려갈 것입니다(요14:3).

유대인 신부가 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신부에게 언제라도 신랑이 임할 수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언제든지 교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만난 뒤 자기 집을 떠나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교회 역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휴거를 받은 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살전 4:17; 요14:2-3).

유대인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이미 오래 전에 확립했던 결혼 계약을 완성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신랑의 아버지 집이 있는 하늘에 도착해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이미 오래 전에 그리스도께서 확립하신 새 언약에 근거한 특별 관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유대인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한 뒤 7일 동안 혼인 방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한 뒤 7년 동안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땅에서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하늘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 신랑이 7일이 지난 뒤 신부를 혼인 방에서 데리고 나와 그녀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기고 모두에게 그녀를 공개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7년 환난기가 지나면 자신의 신부를 하늘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땅에 강림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부를 공개할 것입니다(골3:4).

## 배울 점

그 밤은 12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밤이었다. 기쁨이 다 사라졌다. 근심만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계획을 말해 주겠다.

너희 모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정혼 뒤 신랑이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결혼이 마무리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랑인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처소를 만들고 다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말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뒤 승천했다가 처소를 만들고 다시 와야 신부인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 있는 동안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며 여기서 하루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말해 주마.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16:33).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았다. 믿음 생활 했다. 배가 고파서 육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였다. 그런데 육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영의 문제가 오고 있다. 왜?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듣도 보도 못한 좌익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심지어 신앙 영역까지 간섭하면서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를 바꾸기가 힘들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오는 확고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빌4:4-7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다가오는 환난이 우리의 뉘집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싸우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기쁨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주셨다. 그분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부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언제라도 나타나실 신랑 예수님을 고대하며 신실하게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